

P-X · EG 수입가격 소폭 하락

수입업협회, 6월 국제유가 안정으로 석유화학 원료도 내림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발표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석유화학 원료가격도 영향을 받아 6월 원자재 수입가격지수가 9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수입업협회가 발표한 국제 원자재 수입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2004년 5월까지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냈던 국제유가는 6월 OPEC의 증산 발표와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설로 가격이 다소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나프타 수입가격 역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판은 5월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동시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메탈올은 5월 가격에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6월 P-X(Para-Xylene) 가격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는데,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시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주 원재료인 P-X 역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상승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EG(Ethylene Glycol) 가격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소폭 하락했는데,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높게 형성돼 있고 중국에서 전력난 등으로 공장가동이 부진하면서 재고가 충분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EG 가격 역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Caprolactam은 주 원료인 벤젠 가격상승과 중국의 수급타이트로 가격이 꾸준한 강세를 이어갔다.

한편, 6월 원자재 수입가격지수인 코이마(KOIMA) 지수(1995년 12월=100)는 138.57로 5월에 비해 4.3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OIMA 지수는 2003년 10월 이후 2004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14>